

01 교회소식

가슴 깊이 새겨진 주님의 사랑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순교 장면이 성도들의 가슴을 적셨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03 기획특집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담대해지며 결국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04 간증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딸의 질병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받은 이현옥 집사와 성경을 읽다가 치료받은 케냐 에스터 완지루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631호 2014년 4월 2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4 부활절 공연 '눈물' GCN 방송 생중계

닛시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연기자들의 라이브 찬양

"나의 마음 가득한 사랑
 순교자들의 눈물을 드렸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순교자의 열매되었네..."

복음을 전하다 포승줄에 묶여 참수터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간절한 곡조의 찬양이 흘러나왔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안드레,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 에티오피아의 외딴 도시에서 참수형을 당한 마태, 돌로 쳐죽임 당한 빌립, 죽창에 찔려 죽은 도마 등 사도들의 순교 장면으로 공연은 시작됐다.

지난 4월 18일 금요일아침예배 2부 시 부활절을 앞두고 펼쳐진 2014년 부활절 공연 '눈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염없이 눈물짓게 했다. 예능위원회(위원장 이희진 목사)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총 4막으로 구성됐다.

1막 '순교'는 주님의 눈물의 열매로 나와진 사도들의 순교를, 2막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했다.

3막 '부활과 승천'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승천하시는 주님을, 4막 '주님의 길'은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그렸다.

특히 공연의 모든 음악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곡들로 구성돼 은혜를 더해 주었으며, 우리 교회 닷시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연기자들의 라이브 찬양은 진한 감동을 더했다.

공연이 마쳐진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막달라 마리아의 주를 향한 사무치는 참사랑의 고백과 주님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부활절 공연을 통해 흠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주님께 대한 참된 사랑의 고백을 올리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공연을 함께 관람한 국내외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슴 절절히 느끼며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 없이 순교의 길을 간 사도들처럼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고 고백했다. 마지막 때에 목자와 함께 전 세계 만민에게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각색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셨다(사진 ①참수형을 당하는 사도 바울, ②③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④갓세메게 기도, ⑤⑥병자들에게 붙들려 고초 당하시고 가시려면관을 쓰신 예수님, ⑦십자가 처형, ⑧시신을 염하는 아리마대 요셉, ⑨~⑩주님의 부활과 승천, ⑪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들).

URIM BOOKS



Jesus Christ is our only Savior.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만하면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2)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세주이신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간 구원의 섭리에 관한 명쾌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감동적인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
참 믿음을 소유하며
온전한 신앙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극찬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56개 언어로 발간 십자가의 도



전도용 소책자 _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urimbooks.com 우림북 문의전화 : 070-8240-2072

기획특집_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8~19)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형벌이 없으니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두려움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을지라도 엄청난 고난이 닥쳤을 때 두려워한다면 온전히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따뜻한 봄날 햇볕을 받아 대지에서 새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움트고 온전한 사랑으로 성숙해 갑니다. 나아가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을 내어쫓게 되지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두려움은 범죄로 인해 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게 된 과정이 기록돼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로 창설해 주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각종 나무 실과를 먹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죄로 인한 수치감으로 자기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며 나뭇잎으로 가리고자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죄에 물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발가벗겨 놓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고 지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죄가 들어오니 이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지요. 전에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죄를 짓고 나니 두려움으로 임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게 됐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며 고달픈 삶을 살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한 가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기뻐 받으시자 시기와 미움으로 동생 아벨을 쳐죽이고 맙니다. 이로 인해 가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 그때부터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됐지요. 범죄한 가인은 너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청하지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죄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능력으로 베풀어지는 열 재앙을 보았습니다. 또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험난한 광야길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어떻게 행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때 백성은 다 두려워 떨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했지요.

이런 백성과 달리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을 진정시키며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는 했지만 마음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마음 중심에서 믿었고 하나님 마음을 닦아 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범죄한 백성이 진멸당할 위기에 놓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수한 복음의 진수를 전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만민을 깨우고 있는 사랑과 권능의 목회자.

1982년 장년 9명과 어린이 4명이 모여 시작된 만민중앙교회를 성령의 역사 속에 전 세계 만여 지·협력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초대 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입증하신 것처럼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능을 통해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하고 있다.

2000년부터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에스토니아 등에서 대규모 연합집회 부흥사로 활발하게 사역해 왔으며 집회 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CNN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220여 개국에 중계됐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뤄 드리고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다.

www.drlee.or.kr

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지요. 그만큼 하나님 마음을 닦은 모세였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와는 이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만나 주셨으나 모세와는 친히 대면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이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고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민 12장).

셋째로,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 그만큼 알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예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성결케 했으며 잔칫날이면 흑시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즐기는 중에 죄를 범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염려해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욥이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면 재앙을 만난 후에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지요. 곧 축복을 넘치게 받던 중에도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혹 내게 재앙을 주시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뤄졌다면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의 말이 옳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처럼 욥은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기는 하지만 직접 체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참된 사랑의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된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지요(욥 42:5).

연단받기 전에는 전해 들은 지식에 의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는데 이제 직접 만나고 체험하니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

따라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지요. 오히려 사모하면서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는 모든 죄가 대속되는 길이 열려 있기에 사랑이 임하는 만큼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두려움이 조금도 틈타지 않습니다.

2.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 66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가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 주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운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한다는 것은 곤욕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음성이라도 듣고 싶어 늘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과 함께한다면 하루 종일 걷는다 해도 다리가 아픈지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2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진리 안에 거할 때 담대히 구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우리에게 돌아갈 분향인 천국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 육의 생명이 끝난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사랑을 나눌 것을 바라본다면 현재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천국집을 예비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를 맞이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신속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5
MAY
2014.4.27-5.3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2차 영혼육 5-9
- 죄와 뿌리와 성결 1-2
- 치료와 응답의 공의 1-2
- 일곱교회 2-6
- 사랑장 14-18
- 부활 * 요한일서 강해 4-8
- 우리 삶의 등불 6-7

GCN TV설교

- 사랑의 힘으로 (이수진 목사)
- 그대로 행하여 (이미영 목사)
- 영의세계 15 (이희선 목사)
- 복있는 사람 3 / 생명수 7 (신동호 목사)
- MIS강의 7 / 충성된 사자 (장규영 목사)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구희선 전도사)
- 행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목자님 (김생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4
- 옛날 옛적에 3
- 만민 지킴이 3
- 모두 드려요 1-4
- 흥겨운 소리 2
- 일곱달콩 아여쁜 율동 24
- 찬양 드려요 24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4, 18, 20
- 황기 23-24 * English 12
- 플로리스트 12-13

해외성회 프로그램

- 페루연합대성회 3
- 회상 1,2,5,6

워싱턴,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딸의 아토피성 피부염과 제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 주셨어요”

지난 1월 29일, 셋째 아이(박민희, 3세)의 오른쪽 팔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병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진물이 나더니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02-830-5320) 환자기도를 받았는데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사야 59장 1~2절에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죄의 담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2월 2일 주일, 이미경 대대교구장님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으러 갔습니다. 대대교구장님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지요. 저는 그때 낙태한 사실이 떠올랐고, 회개한다고 했지만 온전히 회개가 안 된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날 저녁, 당회장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의 선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늘 안타깝게 말씀을 전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당회장의 사랑이 밀려오면서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던 딸아이가 뒤척이기에 피부염 때문인 줄 알고 팔을 확인했더니 진물이 마르고 딱지가 앉을 기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웠지요. 새벽 5시쯤 일어나 기도하는데, 당회장의 헌신적인 사랑이 떠올라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 후 딸의 아토피를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 나흘간 우



치료받은 딸과 함께한 이현옥 집사 (1대대 6교구, 34세)



캡션 : 애들하며 회개한 후 딸의 피부염이 호전돼 진물이 마르고(좌, 2월 3일), 지난날 낙태한 일을 통회자복한 후에는 딱지가 앉아 떨어지더니(중앙, 2월 6일) 발병 후 12일 만에 깨끗이 치료됐다(우, 현재).

리 교회 부설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복님 원장님의 말씀을 통해 저를 발견한 후 통회자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어 화상을 통해 딸아이의 사진에 손을 얹고 당회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지요.

믿음으로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받은 결과 2월 5일에는 환부에 딱지가 앉고, 6일에는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9일에는 새살이 돌아나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더불어 제 마음 깊은 곳의 상처가 치유되고 비진리를 벗어버리는 축복도 받았습니니다. 저는 송구영신에배 이후 죄악을 발견해 신속히 버리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이 너무 싫어요.”라고 소리 지르며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런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지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는 분과 대화하던 중, 어릴 적 일이 떠올랐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린 제가 거울을 보며 “넌 왜 태어났냐? 죽어버려라.”라고 저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헐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근본이 바로 어린 시절에 가졌던 어두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야 제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친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가 치유돼 헐기가 쉽게 버려지며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됐습니다. 딸의 피부염은 물론, 제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과 척추 통증을 치료받았어요”



에스더 완지루 집사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53세)

저는 2년 동안 척추 통증으로 인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고 심할 때는 두통까지 동반했습니다. 게다가 작년 10월부터는 눈이 무척 가렵고 통증이 와서 눈물 흘림이 잦아져 생활하기가 불편했습니다.

2월 9일 주일, 담임 정명호 목사님(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경회 총회장)이 전 성도에게 3월 말까지 성경 전체를 정독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눈 통증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지요.

매일 저녁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한 후 집에 돌아와 밤 11시까지,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8시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기사와 표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불평 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그 뒤 놀랍게도 눈의 통증과 가려움증, 눈물이 자주 나던 증세, 그리고 척추 통증까지도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저는 6년 전까지만 해도 12년 된 자궁근종과 그 합병증으로 10년 동안 하혈하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정명호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권능의 손수건 집회에 참석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은 뒤 치료됐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지요. 시간이 지나자 습관적으로 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됐지만 이번 체험을 통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사랑을 깨우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경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1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경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경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경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경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경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흥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238,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성시 성북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